

업계소식

팜덕

‘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 지정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원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의 보유여부, 재무 건전성,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패밀리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연구원 개발 기술의 상업화 가능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연구사업 의뢰 시 매칭 펀드 제공 및 패밀리기업의 국가 R&D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 기업성장 전략 수립 지원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원 파견 및 연구원 이전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팜덕은 식품연이 농생명산업 지역인 전라북도의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신청사 업무를 개시하고 처음으로 지정한 패밀리기업이며, 전라북도에 소재한 식품기업 중 처음으로 지정된 패밀리기업이다. 그동안 지리산골 청정지역에서 위생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오리를 원료로 해 가공육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 날 팜덕의 박영진 회장은 “앞으로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R&D 및 장기 기업 성장 전략 수립 등 양질의 지원을 받게 돼 팜덕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번영에 앞장서고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조그룹

‘선생님과의 추억 댓글’ 이벤트



사조그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의 추억 댓글’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사조그룹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됐던 이번 행사는 SNS 메시지나 직접 제작한 영상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세에 따라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는 응모자중 페이스북 5명, 인스타그램 5명을 선정해 사조화인코리아에서 신선한 국내산 오리로 가공하여 만든 ‘강황 먹인 오리슬라이스’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사조그룹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한다”며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마음도 나누고 경품도 받아가서 즐거운 스승의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참프레

에어프라이어 등 6종 닭고기 신제품 출시



동물복지 닭고기 최초·최대 기업 참프레가 식문화 트렌드에 맞는 에어프라이어 6종 닭고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출시한 참프레 신제품은 바삭치킨너겟, 통살커리치킨, 슈퍼곡물 크리스피 순살, 슈퍼곡물 크리스피 텐더, 직화그릴 닭다리, 직화 그릴윙 등 총 6종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하게 닭고기 제품을 즐길 수 있게 출시했다.

최근 간편한 조리방법과 실내 미세먼지 걱정에 에어프라이어의 인기와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용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맛과 컨셉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더욱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참프레 에어프라이어 6종 제품 특징은 트랜스지방을 낮춰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할 시 기름 없는 간단한 조리방법과 조리 후에도 깨끗한 뒤처리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삼호유황오리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와 협약



(주)삼호유황오리가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축산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전북 소재 오리고기 전문기업 (주)삼호유황오리(대표 이세종)가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회장 홍귀표)와 지난 5월 1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기금 공동 조성과 농축산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업과 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출자해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삼호유황오리는 지난 2005년 설립돼 전북 정읍에서 오리 도암, 가공 등을 총괄하는 업체로 한국오리협회의 회원사이며,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